자발적 발화 표본 수집 방식으로서의 대화, 자유놀이 및 이야기 비교

김성수*·이상경**
(*동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김성수·이상경. 자발적 발화 표본 수집 방식으로서의 대화, 자유놀이 및 이야기 비교.『언어청각장애연구』, 2008, 제13권, 제1호. 44-62. 배경 및 목적: 임상현장에서 자발적 발화표본은 수집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대화, 자유놀이, 그리고 이야기이다. 이 세 가지 발화표본 수집 방식에 따라 학령전 언어장애아동들의 발화수, 발화길이, 구문적 복잡성 측면에서의 산출 양상이 다를 것인가를 살펴, 언어장애 진단에 있어서의 각 수집방식의 차별적 적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생활연령 5;5~6;10세, 언어연령 4;1~5;2세 언어장애아동 19명을 대상으로 각각 대화, 자유놀이, 이야기 방식을 통하여 수집된 발화 표본에 대해 각 방식마다의 발화수, 평균형태소길이(MLU-m), 그리고 복합구문비율을 구한 후, 이를 반복측정 분산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발화수 크기는 대화, 자유놀이, 이야기 순서로 감소하였으며, 자유놀이와 이야기에서는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균형태소길이는 이야기, 대화, 자유놀이의 순서로 감소하였다. 셋째, 복합구문 비율은 이야기, 대화, 자유놀이의 순서로 감소하였으되, 이야기-대화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국 대화는 가장 많은 발화를 이끌어 냈다. 이야기는 가장 적은 발화수와 구문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발화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자유놀이는 구문측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발화를 이끌어 냈다. **논의 및 결론:** 학령전 언어장애아동의 경우, 대화는 개인의 특성에 관계없이 적합한 발화수를 보장하는 방식이며, 이야기는 최대 수준의 구문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방식임을 전제로, 임상가들은 평가의 목적과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화 표본 수집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언어장애아동, 자발화 분석, 대화, 자유놀이, 이야기

Ⅰ. 서 론

언어장애아동의 언어진단 및 평가에서 표준화 검사가 가지는 몇몇 한계로 인하여 자발적 발화 표본(spontaneous speech sample)은 중요한 언어평가 토대를 구성한다(Hawkins & Spencer, 1985). 특히, 적합한 치료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할 경우에는 표준화 검사 결과 외에 자발적 발화 표본의 분석을 통한 자료를 반드시 추가 보충해야 한다(Blau, Lahey & Oleksiuk-Velez, 1984).

게재 신청일: 2008년 1월 30일; 최종 수정일: 2008년 3월 1일; 게재 확정일: 2008년 3월 14일
§ 교신저자: 김성수, 동신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언어치료학과 교수,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252번지, e-mail: sskim@dsu.ac.kr, tel.: 061-330-3472

ⓒ 2008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http://www.kasa1986.or.kr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Dollaghan, Campbell & Tomlin (1990)에 따르면, 임상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발적 발화 수집 방식은 대화(conversation)와 자유놀이(freeplay)이다. 그리고 이야기(story) 역시 중요한 발화 분석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Merrit & Liles, 1989). 대화는 연구자가 아동에게 다양한 주제(예: 가족, TV프로그램)에 관해 질문하고 답하는 인터뷰 형식(Evans & Craig, 1992; Longhurst & Grubb, 1974; Southwood & Russell, 2004)이나 "하고 싶은 놀이가 뭔지 말해줄래?"와 같은 구어 요구 형식(Atkins & Cartwright, 1982)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언어 수집 방식으로서의 대화는 자발성이 결여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Wren, 1985).

Crystal, Fletcher & Garman (1989)은 자유놀이가 훌륭한 언어자료 수집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유놀이는 연령에 적합한 장난감 놀이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전형적인 언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아동 또는 양육자-아동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발화 표본을 추출해 낼 수 있다(Wren, 1985). 그러나 이 방식은 적합한 양을 수집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를 가진다(Dollaghan, Campbell & Tomlin, 1990).

이야기는 담화의 자연스러운 형태로서 아동의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발생된다(Feagans & Short, 1984). 그 대표적인 방식은 특정주제에 관한 이야기(Southwood & Russell, 2004), 그림자극을 이용한 이야기(Wren, 1985), 그리고 미리 들려준 이야기에 대해 다시말하기(retelling)(Peterson & McCabe, 1983) 등이다. 최근에는 이야기를 통한 자발적 발화 분석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통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기순 외, 2007; 김유정·배소영, 2004; 배소영·이승환, 1996).

Longhurst & Grubb (1974)은 언어자료를 수집하는 절차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각 방식마다 언어 산출의 양적 및 구문적 측면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후 몇몇 연구들이 대화와 자유놀이, 그리고 이야기를 중심으로 수집방식에 따른 발화수나 발화의 표현구문적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발화수 외에 표현구문적 측면에서는 주로 자발적 발화 수집방식에 따른 발화 길이의 차이를 살피기 위해 평균형태소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s in morphemes: MLU-m, 이하 MLU-m)를, 그리고 구문구조의 질적 차이를 살피기 위해 복합구문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구문적 측면에서 동사 형태나 동사의 수(Wren, 1985), 구문오류(Southwood & Russell, 2004)를 추가 분석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측정한 MLU-m과 복합구문의 비율을 중심으로 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5세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Southwood & Russell (2004)의 연구에서 발화수는 이야기에서 가장 낮았으나 MLU-m은 이야기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에, 복합구문의 비율은 이야기와 대화 사이에 차이가 없었고, 자유놀이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수집방식상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Atkins & Cartwrigt, 1982; Wagner et al., 2000)에서는 각각 사용한 과제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긴 했으나, 역시 공통적으로 이야기보다는 대화나 자유놀이가 더 많은 발화를 유도하며, 구문적으로는 자유놀이보다 이야기나 대화가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산출을 유도하는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장애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일반아동 연구에 비해서는 그 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나 결과에 있어서는 일반아동 연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먼저 구문의 결함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으로 각 수집 방식들을 비교한 Wren (1985)의 6세 연구에서는 MLU-m이 이야기와 대화가 자유놀이보다 길었고, 발화의 구문 복잡성도 더욱 높았다. 그리고 8~9세의 언어장애를 대상으로 실시한 Evans & Craig (1992)는 대화 방식이 자유놀이에 비해 보다 많은 발화와 질적으로 높은 언어를 유도해 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난감을 이용한 자유놀이보다는 인터뷰 형식의 대화로부터 수집한 발화 표본에서 발화수, 복합구문의 비율, 그리고 MLU-m 모두가 더욱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발화 수집방식으로서의 대화, 자유놀이, 이야기는 산출 수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outhwood & Russell (2004)은 진단 및 중재의 목적에 따라 아동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집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간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발화 관련 연구들에서는 주로 자유놀이(이현정 외, 2003; 홍경훈·김영태, 2001), 또는 대화와 자유놀이의 절충방식(김영태, 1997; 임지윤·김성수, 2007) 그리고 이야기(김기순 외, 2007; 김유정·배소영, 2004; 배소영·이승환, 1996) 중 어느 한 가지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MLU-m을 비롯한 각종 평균발화길이, 의사소통의도, 용언 산출, 복잡한 구문의 수, 그리고 평균절길이, 이야기문법이나 결속표지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하여 대상아동들을 비교하거나 또는 대상 아동의 특성이나 연령에 해당하는 발달적 규준들을 수립하는 일이 활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각각의 발화 유도절차가 가지는 고유한 차별적 특성에 주목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는 임상가들이 어린 언어장애아동의 언어 진단을 계획하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자발적 발화 수집방식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연구의 주목적은 발화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택하는가에 따라 어린 언어장애아동들의 발화 산출이 특히 발화수와 구문적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살펴봄으로써 각 수집 방식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 평가의 목적에 따라 어떤 언어자료 수집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인가를 알아내기 위함이다. 이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도 절차에 따라 수집된 발화를 직접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화의 양적 측면에서 발화수를, 그리고 구문적 측면에서 MLU-m과 복합구문비율을 측정하였다. 구문적 측면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 이 두 가지 변인을 선택한 이유는 이 두 변인 모두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변인들이었을 뿐 아니라, 특히 MLU-m은 국내외의 자발화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화길이 측정에 활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 중 하나이며, 그리고 복합구문비율은 개인의 전반적인 구문능력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며(Crystal, Fletcher & Garman, 1989), 또한 이것이 구문구조의 질적 측면에서 각 발화 수집방식의 고유한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해 줄 것(Evans & Craig, 1992; Southwood & Russell, 2004)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전 언어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대화, 자유놀이, 그리고 이야기의 세 가지 방식을 통해 각각 동일한 시간 동안 수집한 발화들을 분석하여, (1) 발화수, (2) 평균형태소길이, 그리고 (3) 복합구문비율을 비교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7세 이하의 학령전 언어장애아동 19명(남: 12명, 여: 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차는 통제하지 않았다. 대상 선정 기준은 (1)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김영태·성태제·이윤경, 2003)로 측정한 통합언어연령이 자신의 생활연령에 비해 최소 12개월 이상 지체를 보이는 동시에 언어연령이 4세 이상에 해당하며, (2) 과거 정신지체나 청각장애로 진단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3) 조음 및 말 산출 결함, 기타 감각 장애, 정서 및 행동문제, 그리고 신경계 결함을 수반하지 않는 아동으로 하였다. 대상 아동들의 생활연령은 5;5~6;10세(평균 72.5개월, 표준편차 6.06), 언어연령은 4;1~5;2세(평균 54.6개월, 표준편차 4.54)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다. 언어연령을 4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이야기 산출은 최소 4세에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배소영·이승환, 1996).

2. 연구절차

가. 자료수집

(1) 대화

대화 세션에서는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들을 묻고 아동에게 답하도록 하는 방식(Evans & Craig, 1992)으로 발화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Evans & Craig (1992)을 참조하여 아동의 일상에 친숙한 11가지 화제에 대해 각 화제별로 7~13개씩, 총 100개의 질문문항을 구성하고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대화의 질문은 Minskoff, Wiseman & Minskoff (1972)의 절차를 따라 전화통화놀이를 이용한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방식은 과제 참여시에 아동의 흥미를 높여줄 수 있다. 각 화제와 화제별 하위 질문의 예, 그리고 인터뷰 진행절차는 <부록 - 1>에 제시하였다.

11가지 화제는 아동에 따라 그 시작되는 순서를 무작위로 달리하되, 해당 화제별 질문들은 질문지에 기재된 순서대로 질문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에게 같은 질문을 2회 이상 다시 들려주었다. 아동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아예 침묵하거나 모른다고 대답한 경우에, 그리고 질문에 답한 후 3초 이상 침묵하여 연구자의 “더 할 말 없니?”라는 질문에 아동이 동의를 표할 경우에는 즉각 다음 질문을 진행하였다. 모든 아동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똑같이 하였으나, 아동이 하나의 질문에 대해 반응하는 도중 스스로 다음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이어서 미리 대답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해당 질문을 생략하였다. 아동이 발화하는 중간중간 연구자는 “음, 그렇구나”, “와! 대단한데?”, “맞아”, “정말?”,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떻게 했어?”, “왜?”와 같은 구어자극,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소 짓는 등의 비구어적 자극을 함께 제공하였다. 아동의 발화가 불명료했을 때는 1~2회에 한하여 “뭐라구?”, “잘 안 들리네. 다시 말 해 줄래?”라고 아동이 재발화 하도록 유도하였다.

⑵ 자유놀이

자유놀이 세션에서는 연구자와 아동이 장난감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면서 아동이 산출한 발화를 수집하였다. 장난감세트와 놀이의 진행은 Southwood & Russell (2004)의 절차를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놀이 시작 시점에서의 장난감들의 분류와 배치는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장난감세트의 구성과 놀이진행 절차는 <부록 - 2>에 제시하였다.

자유놀이에서는 아동에게 발화를 산출해야 할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 연구자는 아동이 놀이 속에서 대화를 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대화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였다(Kadi-Hanafi & Howell, 1992). 따라서 놀이 도중에 만일 아동이 잘 말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뭐 할 거야?”, “저 상자 속엔 뭐가 있는지 볼까?”와 같이 아동에게 최소한의 자극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대상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발화를 유도하는 것은 가능한 지양하였다. 이밖에 연구자가 아동에게 구어 및 비구어적 반응을 제공하는 것과 불명료한 발화에 대해 1~2회에 한하여 재발화를 유도하는 것은 대화 세션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⑶ 이야기

이야기 세션에서는 흥미 있거나 경험이 있을 법한 개인사적 이야기를 먼저 들려준 후, 아동에게 이와 유사한 일이 혹시 일어나지는 않았는지를 묻고, 아동이 자신도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Peterson & McCabe, 1983)을 택하였다. 개인사적 이야기를 과제로 사용한 이유는, Preece (1987)에 따르면, 이것이 5,6세 아동에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이야기 형식이며, Rollins, McCabe & Bliss (2000)는 학령전 아동의 이야기 평가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아동의 개인사적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Southwood & Russell (2004)을 참조하여 간단한 개인사적 이야기 20개를 제작하였다. 제시되는 이야기의 순서는 아동마다 달리하였다. 아동의 이야기가 끝나거나 혹은 아동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즉각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동에게 들려준 이야기 목록과 이야기의 예는 <부록 - 3>에 제시하였다. 이밖에 연구자가 구어 및 비구어적 반응을 제공하는 것과 불명료한 발화에 대해 1~2회에 한하여 재발화를 유도하는 것은 대화 및 자유놀이 세션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연구자와 아동이 조용한 방에서 일대일로 대화, 자유놀이, 이야기 세션을 연속으로 실시하였다. 각 세션의 실시순서는 대상에 따라 교차하여 번갈아 진행하였다. 실험시간은 대화, 자유놀이, 이야기 각각 약40분, 중간의 휴식시간 10분을 포함하여 전체 140분가량 소요되었다. 발화수집의 전 과정은 JVC GR-D70KR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하여 녹화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나. 자료분석

아동의 발화는 자료수집 후 1~2일 이내에 녹화된 자료를 보면서 전사하였다. 대화, 자유놀이, 이야기 각각의 발화수집시간을 30분으로 일치시켰다. 이를 위해 개시 시점으로부터 첫 5분을 제외하고 이후부터 30분이 경과될 때까지의 발화만을 분석하였다. 대화는 아동에게 질문지에 속한 최초의 질문이 가해지는 시점, 자유놀이는 장난감 세트를 소개하여 아동이 장난감을 만지며 놀이를 시작하는 시점, 또는 장난감 세트 소개 중에라도 아동이 이와 관련한 첫발화를 시작했다면 이 시점, 그리고 이야기는 아동에게 이야기를 처음 들려주는 시점을 각 개시시점으로 하였다.

아동의 발화 가운데 조음이 불명료한 발화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중얼거림, 노래와 같은 발화, 그리고 "몰라요, 네, 아니오, 응"과 같은 단순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회 이상 동일한 발화가 단순 반복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의 발화만을 포함하였고, 자기수정을 했을 때(예: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는 최종 수정된 발화만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노래와 같다 할지라도 아동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노래를 개사했거나, 발화에 스스로 멜로디를 첨가하여 말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구문적 복잡성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Southwood & Russell, 2004; Wren, 1985)은 Language Assessment, Remediation and Screening Procedures (LARSP) 프로파일(Crystal, Fletcher & Garman, 1989)의 Ⅴ~Ⅶ단계에 해당하는 복합구문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번안하여 이 중에서 한국어의 구문과 상이한 부분은 제외하고, 대등적 연결문장, 종속적 연결문장, 1개 이상의 절(명사절, 부사절, 관형절, 서술절, 인용절)을 안은문장(내포문), 비교문, 사동문, 피동문을 복합구문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복합구문의 비율은 전체 복합구문의 수를 단문 이상으로 구성된 전체 절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구하였다. 여기서 단문이라 함은 주어와 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맺어지는 것을 말한다(남기심·고영근, 1996).

대화, 자유놀이, 이야기로부터 30분 동안에 산출된 아동의 발화 표본을 각각의 개별 발화로 구분하여 세 가지 수집 방식별로 발화수, 형태소의 수, 그리고 복합구문의 수를 구한 후, (1) 발화수, (2) 평균형태소길이(MLU-m), 그리고 (3) 복합구문비율(Wren, 1985)을 계산하였다. 발화 구분과 형태소 구분은 모두 김영태(1997)의 구분 원칙을 따랐고, 복합구문의 구분은 남기심·고영근(1996)을 참조하였다. 평균형태소길이와 복합구문 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평균형태소길이(MLU-m) = 각 발화 형태소수의 합 ÷ 총 발화의 수
복합구문비율 = 각 발화 복합구문수의 합 ÷ 총 절의 수 x 100 (%)

다. 신뢰도 및 통계처리

연구자 2명이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평가자간 신뢰도를 구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였다. 평가자간 신뢰도는 각각 .발화 구분 및 발화 수는 96%, 형태소 수는 93%, 그리고 복합구문 수는 94%였다.

대화, 자유놀이, 그리고 이야기의 세 가지 수집 방식에 따른 발화수, 평균형태소길이, 그리고 복합구문 비율에 대하여 각각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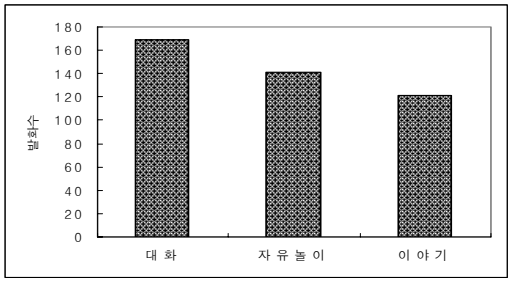
Ⅲ. 결 과

1. 발화수

<표 - 1> 발화수에 대한 수집방식의 효과 검정

수집방식	평균[a](표준편차)	F
대화	165.7 (± 11.71)	
자유놀이	144.2 (± 45.41)	14.418*
이야기	120.1 (± 32.33)	

[a]단위: 개(발화수), *$p < .001$



<그림 - 1> 수집방식에 따른 발화수 비교

세 가지 발화 표본 수집방식을 통해 수집한 발화 자료의 발화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이에 대해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를 <표 - 1>에 제시하고, 이를 <그림 - 1>로 도표화하였다.

대상들이 산출한 평균 발화수는 <표 - 1>에서와 같이, 대화, 자유놀이, 그리고 이야기 각각이 165.7개, 140.9개, 121.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크기 역시 동일한 순서로 점차 감소하였다 (<그림 - 1> 참조), 이러한 평균차에 대해 분산분석한 결과, 세 가지 수집방식에 따른 발화수 차이는 유의하였다 ($F_{(2,36)} = 14.418$, $p < .001$). 이에 대한 대응비교(pairwise comparison) 결과, 발화수는 대화-자유놀이($p < .05$), 대화-이야기($p < .001$), 그리고 자유놀이-이야기($p < .05$) 각각에서 모두 유의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발화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대상 아동들이 산출한 발화수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화 수집 방식은 대상 아동들이 산출한 발화량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특이할 만한 것은 각 방식에서 나타난 표준편차의 크기이다. 대화는 표준편차 11.71(최소-최대값 139-188개), 자유놀이는 표준편차 45.41 (최소-최대값 56-228개), 그리고 이야기는 표준편차 32.33(최소-최대값 70-192개)이었다. 이는 대화에서는 산출한 발화량에 있어서 개인간에 비교적 안정적인 편차를 보였으나, 자유놀이와 이야기에서는 대화 방식에 비하여 개인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매우 컸음을 의미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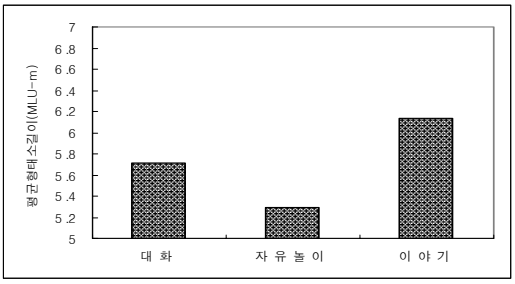
2. 평균형태소길이(MLU-m)

세 가지 자발화 수집방식을 통해 수집한 발화 자료에서 나타난 평균형태소길이(MLU-m)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이에 대해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를 <표 - 2>에 제시하고, 이를 <그림 - 2>로 도표화하였다. <표 - 2>에서와 같이, MLU-m은 대화, 자유놀이, 그리고 이야기 각각이 5.71 (SD 0.95), 5.29 (SD 1.19), 6.03 (SD 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크기는 이야기, 대화, 자유놀이의 순서로 점차 감소하였다(<그림 - 2> 참조). 이 평균차에 대해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수집방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다 ($F_{(2,36)} = 11.038$, $p < .001$). 이에 대한 대응비교 결과, MLU-m은 대화-자유놀이($p < .05$), 대화-이야기($p < .05$), 그리고 자유놀이-이야기($p < .001$) 각각에서 모두 유의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발화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대상 아동들이 산출한 발화길이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화 수집 방식은 대상 아동들이 산출한 발화의 길이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 2> MLU-m에 대한 수집방식의 효과 검정

수집방식	평균[a)](표준편차)	F
대화	5.71 (± 0.95)	11.038*
자유놀이	5.29 (± 1.19)	
이야기	6.13 (± 1.27)	

[a)]단위: 개(평균형태소길이), $^{*}p < .001$



<그림 - 2> 수집방식에 따른 MLU-m 비교

3. 복합구문비율

세 가지 자발화 수집방식으로 수집한 발화 자료에서의 복합구문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이에 대해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를 <표 - 3>에 제시하고, 이를 <그림 - 3>으로 도표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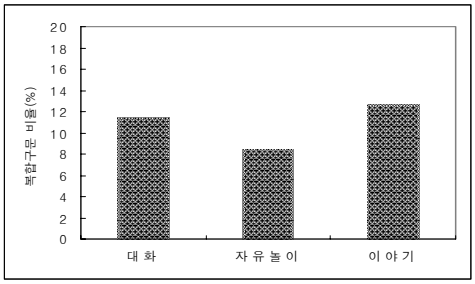
복합구문비율은 <표 - 3>에서와 같이, 대화, 자유놀이, 그리고 이야기 각각이 11.42% (SD 2.59), 8.47% (SD 3.19), 12.33% (SD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크기는 이야기, 대화, 자유놀이의 순서로 점차 감소하였다 (<그림 - 3> 참조), 이러한 평균차에 대해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수집방식에 따른 복합구문비율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F_{(2,36)} = 29.630$, $p < .001$). 이에 대한 대응비교 결과, 이 차이는 대화-자유놀이($p < .001$), 자유놀이-이야기($p < .0001$) 사이에서 유의하였으나 대화-이야기($p = .060$)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대화-이야기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까스로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다소 의미 있는 차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발화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대상 아동들이 산출한 복합구문의 비율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발화 수집 방식은 대상 아동들이 산출한 발화의 구문적 복잡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3> 복합구문비율에 대한 수집방식의 효과검정

수집방식	평균[a)] (표준편차)	F
대화	11.42 (± 2.59)	
자유놀이	8.47 (± 3.19)	29.630*
이야기	12.33 (± 2.64)	

[a)] 단위: 백분율(%), *$p < .001$



<그림-3> 수집방식에 따른 복합구문비율 비교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발화 수집방식에 따르는 발화산출 양상을 비교한 결과, 대화, 자유놀이, 그리고 이야기 방식 중 어떠한 형식을 택했는가에 따라 아동들이 산출한 발화수, MLU-m, 그리고 복합구문비율에서 모두 의미있는 변화들이 발생하였다. 이는 곧 각각의 언어표본 수집방식이 언어장애아동들의 발화량, 발화길이, 그리고 구문 복잡성 측면에 모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1) 발화수 측면에서, 그리고 (2) 구문적 측면에서 MLU-m과 복합구문비율을 한데 묶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발화수

발화수는 대화, 자유놀이, 그리고 이야기의 순서로 나타났고, 이 차이는 모두 유의한 것이었다. 대화 방식에서 발화수가 가장 많았다는 사실은 선행연구(Evans & Craig, 1992)와 일치한다. 이는 다른 방식들에 비해 일상에 친숙한 화제로 구성된 간단한 인터뷰 형식의 질문들이 언어장애아동들로부터 보다 쉽고 빠르게 발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본 실험에서 대상들은 다른 어떤 방식에서보다도 더욱 빠르고 망설임 없이 말하였다.

그러나 이야기 방식 역시 개인사적 사건이라는 친숙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세 방식 중 가장 적은 발화수를 이끌어냈다. 아동들은 연구자로부터 이미 유사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이야기는 스스로에게도 실제로 일어났었던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꾸며내기 위해 발화를 하는 도중에 자주 머뭇거리거나 비교적 길게 침묵하며 시간을 소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비록 현 연구가 대상의 언어연령을 이야기 산출의 기본구조를 갖추는 4세(김기순 외, 2007)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할지라도, 이 과제가 여전히 언어장애아동들에게는 다소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구문 측면에 대한 논의 부분에서 다시 기술하였다. 발화수와 관련해서 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각각의 표준편차이다. 만일 각 방식에 따른 발화수의 평균만을 놓고 본다면, 세 방식 모두 100발화 이상을 유도해 낼 수 있었다. 따라서 직관적으로는 어떠한 방식을 택하건 간에 모두 분석에 적합한 발화량(예: 30분간 100~200발화, Crystal, Fletcher & Garman, 1989)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방식 마다의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이러한 직관은 크게 어긋난다. 즉, 대화는 표준편차 11.71 (최소-최대값 139-188개)로 비교적 상당히 안정적인 편차를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두 방식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자유놀이는 표준편차 45.41(최소-최대값 56-228개)로 개인에 따른 편차가 가장 컸다. 이는 실제로 이 방식에서는 발화에 대해 어떠한 강제성도 부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아동의 의사소통 스타일이 있는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자유놀이에서 나타나는 발화수 상의 큰 편차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Southwood & Russell, 2004)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다음으로 이야기 방식 역시 표준편차 32.33(최소-최대값 70-192개)로 대화 방식에 비해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자유놀이나 이야기는 개인마다의 편차가 심하며, 따라서 임상가가 첫 분석시점에서 이 두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했을 경우, 아동의 의사소통 성향에 따라 제한된 시간동안 적합한 발화량을 확보하는 일이 어려워 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는 나머지 두 방식들에 비하여 인터뷰 형식의 대화가 아동 개개인의 의사소통 스타일이나 언어수준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발화수를 보장해 주는 방식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대화가 신뢰롭고 타당한 평가 맥락을 구성해 준다는 Evans & Craig (1992)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2. 구문 수준(MLU-m과 복합구문비율)

평균형태소길이(MLU-m)로 본 발화길이는 이야기, 대화, 자유놀이의 순서로 나타났고 이 차이는 모두 유의한 것이었다. 이야기가 대화나 자유놀이에 비하여 더욱 긴 발화를 끌어냈다는 결과는 Dollaghan, Campbell & Tomlin (1990) 그리고 Wagner et al.(2000)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복합구문 비율은 이야기, 대화, 자유놀이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다만 이야기-대화 (p = .060) 사이를 제외하고 모두 의미있는 차이였다. 그리고 이 크기의 순서는 MLU-m에서의 순서와 동일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야기는 비록 발화수에 있어서는 세 방식 중 가장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문적 측면에서 만큼은 가장 긴 발화와 동시에 구문구조의 질적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발화를 유도해내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야기가 개인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언어 기술을 끌어내도록 강력히 촉구(Wagner et al., 2000)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야기는 그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방식들에 비해 구문적으로 보다 길고 복합적인 문장구조를 요구한다. 실제로 본 연구의 과제 수행 중에 아동들은 이야기를 생성해 내는 동안 반복적으로 자기수정을 하면서 자신의 발화를 형태론적으로 좀 더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예: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을 자주 보인 바 있었다. 이러한 교정적 반복은 정상아동 이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기 연구(배소영·이승환, 1996)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 경우 최종적으로 수정된 마지막 발화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바로 이야기에서 가장 길고 질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구문이 나타난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동시에 이야기에서의 발화수가 가장 적었던 이유 역시 뚜렷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유놀이는 MLU-m과 복합구문비율 모두에서 가장 낮은 산출을 이끌어 냈다. 상식적으로 아동들은 이야기나 대화 방식에 비하여 자유놀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발화나 수용가능한 생략형태의 발화를 사용할 기회가 보다 많았을 것이다. 또한 아동들은 의사소통보다는 놀이 자체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할 것이다. 이는 자유놀이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 즉 자유놀이는 아동의 발화에 대해 특별한 통제를 하지 않으며, 아동에게 이미 습득한 구문구조를 스스로 사용해 볼 맥락을 반드시 제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특징(Southwood & Russell, 2004)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이야기에서 자주 발생한 바 있던 아동들의 교정적인 자기수정 행동이 대화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자유놀이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은 바 있다. 더군다나 성인 앞에서 보다 덜 반응적인 경향을 보이는 언어장애아동들(Rosinski-McCledon & Newhoff, 1987)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자유놀이만의 고유한 특성이 이들 발화의 표현 언어의 질을 더욱 감축시켰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자유놀이가 특히 대화보다도 더욱 낮은 구문을 이끌어 냈다는 사실은 Longhurst & Grubb (1974)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놀이와 같이 덜 구조적인 유도 세팅이 대화와 같이 약간 더 구조적인 세팅에서보다 더욱 복합적인 언어를 이끌어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는 지적 결함을 보이는 아동들로부터 얻어진 결과였으며, 이것이 바로 현 연구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될 것이다.

요약하건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적어도 학령전 언어장애아동의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세 가지 발화 수집방식들이 각각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그 적용성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대화는 언어장애아동 개개인의 언어능력이나 의사소통 스타일에 관계없이 적합한 발화량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발화길이 및 구문구조의 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발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방식이었다. Wiig & Semel (1984)은 언어장애아동이 할 수 있는 최대수행과 보통으로 하는 정도의 전형적 수행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평가의 목적에 따라 이에 대한 초점을 유지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가들은 진단 및 중재 목적 그리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일 임상가가 첫 진단 시점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발화량 이상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터뷰 형식의 대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일 것이다.

둘째, 그러나 평가의 초점이 구문구조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의 개인의 최대수행치를 보고자 하는 것이라면 세 방식 중 이야기가 보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재효과를 알고자 할 때에도 역시 이야기를 통해 측정한 최대수행치를 살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최초에 전형적 수행치로 아동을 진단했다면, 중재 이후 아동에게서 새로이 출현한 구문구조나 발달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적 진보가 중재를 통한 직접적인 효과인지 혹은 아동이 이미 습득했던 바의 구조가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짓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자발성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개인적인 의사소통 스타일이나 상호작용의 질까지 보고자 한다면 이때는 자유놀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평가도구란 개인의 발화 스타일과 오류를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Botting, 2002).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자유놀이를 통해 측정된 아동의 수행 수준은 아동의 진정한 구문저 능력을 실제 보다는 비교적 저평가한 것일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유놀이에서 의사소통 상대자의 역할을 정확히 정의하고 이를 계량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Cowan et al. (1967)은 동질적 집단에서조차 연구자의 시도에 따라 발화 길이가 최대 4 낱말까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발화수집 방식으로 자유놀이를 선택했을 때는 나타난 결과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초점은 발화수집 방식에 따른 발화수 및 표현구문적 산출의 차이에 있었다. 그러나 Leadholm & Miller (1995)는 자발화 자료에서 발달적 진보를 보이는 세 가지 핵심 표지가 평균발화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MLU), Number of Different Words (NDW), 그리고 Total Number of Words (TNW)라 하였다. 그리고 임상가들 역시 자발화를 수집할 때 구문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발화수집 방식에 따른 발화 산출의 변화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어휘의 다양도와 관련된 NDW와 TNW, 그리고 이 밖의 의미·화용적 변인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구문적 측면에 국한하여서도 일부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발화길이나 복합구문 비율 외에 동사형태, 동사의 수, 구문오류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다면 수집방식에 따른 대상아동들의 구문산출 변화 양상을 보다 다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어장애아동의 수행수준 자체가 아니라 그 수행에 있어서의 상대적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발화수집 방식의 고유한 차별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대상 수가 적었고 대상의 성별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대상을 보다 특정 장애군(예: 단순언어장애)으로 한정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상들이 산출한 발화수, MLU-m, 그리고 복합구문비율은 그 자체만으로 언어연령 4세의 학령전 언어장애아동의 구체적인 수행 능력을 밝히는 자료로 일반화되기에는 미흡함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로부터 얻은 결론은 생활연령 7세 이하인 학령전 언어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얻어진 것이므로 그 해석에 역시 제한이 따른다. 왜냐하면 생활연령의 증가에 따른 성숙의 효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각의 과제에 대해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령기 언어장애아동으로 대상의 연령을 확장하여 발화수집 방식에 따른 언어 산출 양상을 살펴보는 것 역시 임상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 고 문 헌

김기순·신지철·이기학·배소영(2007).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이야기 회상 산출 능력.『언어청각장애연구』, *12*, 1-15.

김영태(1997). 한국 2~4세 아동의 발화길이에 관한 기초연구.『말-언어장애연구』, *2*, 5-26.

김영태·성태제·이윤경(2003).『취학전 아동의 표현언어 및 수용언어 발달척도(PRES)』.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김유정·배소영(2004). 학령전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언어발달아동의 이야기 능력.『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 41-58.

남기심·고영근(1996).『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배소영·이승환(1996). 한국아동의 이야기 산출 연구.『말-언어장애연구』, *1*, 34-67.

이현정·박창일·박은숙·김향희(2003). 아동의 구문발달에 따른 용언 발달.『언어청각장애연구』, *8(1),* 20-40.

임지윤·김성수(2007). 구조적 놀이 상황에서 피학대 아동과 일반아동의 구어 의사소통 의도 산출.『언어청각장애연구』, *12(2),* 182-198.

홍경훈·김영태(2001). 아동의 의사소통의도 습득에 대한 종단연구.『언어청각장애연구』, *6*, 17-39.

Atkins, C. P., & Cartwright, L. R. (1982).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ree language elicitation procedures on Head Stat children.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3,* 33-36.

Blau, A. F., Lahey, M., & Oleksiuk-Velez, A. (1984). Planning goals for intervention: Language testing or language sampling? *Exceptional Children, 51*, 78-79.

Botting, N. (2002). Narrative as a tool for the assessment of linguistic and pragmatic impairments. *Child Language Teaching and Therapy, 18*, 1-21.

Crystal, D., Fletcher, P., & Garman, M. (1989). *The grammatical analysis of language disability* (2nd ed.). London: Edward Arnold.

Cowan, P. A., Weber, J., Hoddinott, B. A., & Klein, J. (1967). Mean Length of spoken response as a function of stimulus, experimenter, and subject. *Child Development, 3,* 191-203.

Dollaghan, C. A., Campbell, T. F., & Tomlin, R. (1990). Video narration as a language sampling context.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5,* 582-590.

Evans, J. L., & Craig, H. K. (1992). Language sampling collection and analysis: Interview compared to freeplay assessment context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5,* 343-353.

Feagans, L., & Short, E. J. (1984).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the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narratives by reading disabled and normally achievi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727-173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Hawkins, P., & Spencer, H. (1985). Imitative versus spontaneous language assessment: A comparison of CELI and LARSP. *British Journal of Disorders of Communication, 20*, 191-200.

Kadi-Hanafi, K., & Howell, P. (1992). Syntactic analysis of the spontaneous speech of normally fluent and stuttering children.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17,* 151-170.

Leadholm, B. J., & Miller, J. (1995). *Language sample analysis: The Wisconsin guide*. Wisconsin: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Longhurst, T. M., & Grubb, S. (1974). A comparison of language samples collected in four situation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5*, 71-78.

Merrit, D. D., & Liles, B. Z. (1989). Narrative analysis: Clinical applications of story generation and story retelling.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4,* 429-438.

Minskoff, E. H., Wiseman, D. E., & Minskoff, J. G. (1972). *The M.W.M. program for developing language abilities: Expression manual*. Ridgefield, NJ: Educational Performance Associates.

Peterson, C., & McCabe, A. (1983).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Three ways of looking at child's narrative*. New York: Plenum Press.

Preece, A. (1987). The range of narrative forms conversationally produced by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Language, 14,* 353-373.

Rosinski-McCledon, M. K., & Newhoff, M. (1987). Conversational responsiveness and assertiveness in language impaired children.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8*, 53-62.

Rollins, P. R., McCabe, A., & Bliss, L. (2000). Culturally sensitive assessment of narrative in children. *Seminars in Speech and Language, 21,* 223-234.

Southwood, F., & Russell, A. F. (2004). Comparison of conversation, freeplay, and story generation as methods of language sample elicitation.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 366-376.

Wagner, C. R., Nettelbladt, U., Sahlen, B., & Hilholm, C. (2000). Conversation versus narration in pre-school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orders, 35,* 83-93.

Wiig, E. H., & Semel, E. (1984). *Languag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for the learning disabled* (2nd ed.).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Wren, C. T. (1985). Collecting language samples from children with syntax problem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6*, 83-10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부록 - 1> 대화 화제 및 화제별 질문의 예와 인터뷰식 대화 진행절차

1a. 11가지 대화 화제	1. 자신·가족 2. 집·주변장소 3. 유치원·어린이집·기타 학원 4. TV 프로그램·비디오 5. 동화책 6. 동물 7. 놀이·장난감·선물 8. 휴일·나들이·이벤트 9. 이웃·친구 10. 직업·주변사물 11. 음식
1b.	<화제: 자신·가족> - 자기 소개 좀 해 줄래? - 지금 입고 있는 옷에 대해 말해 볼래? - 넌 집에서 주로 무얼 하며 보내니? - 너희 가족에 대해서 말해줄래? - 동생이나 형(누나)가 있니? 그(동생, 형, 누나)에 대해 말해줄래? -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니? 그분들에 대해 말해줄래? - 엄마는 보통 때 집에서 어떤 일을 해? - 아빠 차에 대해 말해볼래? - 아빠는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1c. 인터뷰식 대화 진행 절차	- 아동에게 먼저 2대의 장난감 전화를 보여준 후, "여기 전화기가 2대 있지? 이 예쁜 전화기가 네 꺼야" - 그리고 연구자가 아동의 집으로 전화 거는 척한다. "여보세요? 거기 OO네 집이죠? OO 있나요? 아 네가 OO구나. 선생님이 왜 전화했냐하면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내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해 줄래?" - 이후 질문지를 보며 각 화제별 질문들을 아동에게 묻기 시작하였다.

<부록 - 2> 자유놀이의 장난감 세트 및 놀이 진행 절차

2a. 장난감 세트	(1) 2개의 방과 각각 1개의 거실, 주방, 욕실로 이루어진 2층집. 지붕을 떼어낼 수 있고, 앞쪽의 문과 창문이 열린다. (2) 패스트푸드 가게 건물 (3) 가스레인지와 싱크대가 딸린 요리대 (4) 나란히 배치된 7개의 안이 비치는 작고 투명한 장난감 소품 상자 7개의 소품 상자 속에는 각각 ① (가족이나 가게 점원을 상징하는) 6개의 인형 ② 가구류, 주방기기 및 욕실 비품 ③ 모형 음식류, ④ 탈것, ⑤ 각종 동물 인형, ⑥ 병원놀이용 소품, 그리고 ⑦ 나무블럭이 담겨 있다. - 놀이 시작 시점에서의 장난감들의 분류 및 배치는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2b. 놀이진행절차	- 놀이의 진행은 연구자가 모형 집안에 인형과 가구를 배치하는 게임에 대상을 참여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다음과 같이 말한다 "OO야, 여기 멋진 2층집이 있지? 그런데 집안엔 아무 것도 없네, (인형 상자와 가구 상자에서 장난감들을 꺼내 보이며)지금부터 나랑 함께 이 집을 멋지게 꾸며줄까?" - 이후의 놀이 진행이나 다른 장난감 소품들의 추가적인 선택은 아동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부록 - 3> 대화 화제 및 화제별 질문의 예와 인터뷰식 대화 진행절차

3a. 이야기 목록	1.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이야기 2. 팔이 부러진(다친) 이야기 3. 병원에 간 이야기 4. 열이 나서 아팠던 이야기 5. 바다에 갔던 이야기 6. 컴퓨터 게임 이야기 7. 집안을 어지럽힌 이야기 8. 생일파티 이야기 9. 음식 만들기 10. 애완동물과 겪었던 이야기 11. 놀이공원에 갔던 이야기 12. 나들이 갔던 이야기 13. 동물원에 간 이야기 14. 놀이터 이야기 15. 부모님에게 야단맞은 이야기 16. 설날 세배 이야기 17. 장난감을 잃어버린 이야기 18. 장난감이 부서진 이야기 19. 산타할아버지 이야기 20. 지하철 이야기
3b. 이야기 진행절차	- 이야기는 아동에게 개인사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 예: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이야기 "OO야,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길 들어봐." "선생님은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적이 있어. 난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렸지. 그런데 저쪽에서 또 어떤 자전거가 내 쪽으로 오는 거야. 난 너무 빨리 달려서 도저히 멈출 수 없었거든. 그래서 쾅하고 부딪쳤지. 난 넘어졌어. 손바닥이랑 무릎에선 피가 났지. 너무 아파서 울음이 났어", "OO야, 너도 이런 일을 겪은 적 있니?" "그에 대해 한 번 이야기 해 줄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The Comparison of Conversation, Freeplay, and Story as Methods of Spontaneous Language Sample Elicitation

Sung Soo Kim[a,§], Sang Kyung Lee[b]

[a]*Department of Speech Therapy,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b]*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 Objectives: Conversation (CV), freeplay (FP), and story (SG) are most widely used for spontaneous language sample in clinical practic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ompare and explore specific applicability among CV, FP, and SG as methods of language sample elicitation in expressive syntactic production of preschool children with language disorders. ***Methods:*** A total 19 language disordered children (chronological age: 5;5～6;10, language age: 4;1～5;2) participated in the study. Utilizing the 3 methods (CV, FP, SG), we collected children's language sample and analyzed the data with 3 measures: the number of utterances, MLU-m, and the proportion of complex syntactic structure. GLM repeated measure of ANOVA was used to determine significant differences. ***Results:*** First, CV elicited the largest number of utterances and there were very large differences in the standard deviations of the number of utterances in FP and SG. Second, FP elicited the lowest utterances on MLU-m and the proportion of complex syntactic structure. Third, SG elicited the smallest number of utterances but elicited the highest utterances on MLU-m and the proportion of complex syntactic structure. ***Discussion & Conclus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CV method be used for obtaining appropriate number of utterances from children within a restricted time regardless of their individual differences. On the other hand, it is suggested that SG method be used for evaluating children's maximum behaviors on expressive syntactic areas. Clinicians should consider which method would be the best suited for the main purpose of assessment and should select the best appropriate and well-matched procedures for children's personality and communication style.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8;13;44-62)

Key Words: children with language disorders, language sample analysis, conversation, freeplay, story

Received January 30, 2008; final revision received March 1, 2008; accepted March 14, 2008.
§ Correspondence to Prof. Sung Soo Kim, PhD, Department of Speech Therapy, Dong-Shin University, 252 Daeho-dong, Naju-si, Jeollanam-do, Korea, e-mail: sskim@dsu.ac.kr, tel.: +82 61 330 3472

ⓒ 2008 The Korean Academy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http://www.kasa1986.or.kr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References

Atkins, C. P., & Cartwright, L. R. (1982).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ree language elicitation procedures on Head Stat children.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3,* 33-36.

Blau, A. F., Lahey, M., & Oleksiuk-Velez, A. (1984). Planning goals for intervention: Language testing or language sampling? *Exceptional Children, 51*, 78-79.

Botting, N. (2002). Narrative as a tool for the assessment of linguistic and pragmatic impairments. *Child Language Teaching and Therapy, 18*, 1-21.

Cowan, P. A., Weber, J., Hoddinott, B. A., & Klein, J. (1967). Mean Length of spoken response as a function of stimulus, experimenter, and subject. *Child Development, 3,* 191-203.

Crystal, D., Fletcher, P., & Garman, M. (1989). *The grammatical analysis of language disability* (2nd ed.). London: Edward Arnold.

Dollaghan, C. A., Campbell, T. F., & Tomlin, R. (1990). Video narration as a language sampling context.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5,* 582-590.

Evans, J. L., & Craig, H. K. (1992). Language sampling collection and analysis: Interview compared to freeplay assessment context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5,* 343-353.

Feagans, L., & Short, E. J. (1984).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the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narratives by reading disabled and normally achievi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727-1736.

Hawkins, P., & Spencer, H. (1985). Imitative versus spontaneous language assessment: A comparison of CELI and LARSP. *British Journal of Disorders of Communication, 20*, 191-200.

Hong, K. H., & Kim, Y. T. (2001). A longitudinal study of the acquisition of communicative intention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6*, 17-39.

Kadi-Hanafi, K., & Howell, P. (1992). Syntactic analysis of the spontaneous speech of normally fluent and stuttering children.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17,* 151-170.

Kim, K. S., Shin, J. C., Lee, K. H., & Pae, S. (2007). Age-dependent story retelling abilities in preschooler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2*, 1-15.

Kim, Y. J., & Pae, S. (2004). Narrative abilities of Korean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7,* 41-58.

Kim, Y. T., Seong, T. J., & Lee, Y. K. (2003).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Kim, Y. T. (1997). Foundation of length of utterance in 2 to 4 year-old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 5-26.

Leadholm, B. J., & Miller, J. (1995). *Language sample analysis*: *The Wisconsin guide*. Wisconsin: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Lee, H. J., Park, C. I., Park, E. S., & Kim, H. H.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s development of predicates and syntactic ability.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8(1),* 20-40.

Lim, J. Y., & Kim, S. S. (2007). The production of verbal communicative intentions by maltreat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in structured play context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2(2),* 182-198.

Longhurst, T. M., & Grubb, S. (1974). A comparison of language samples collected in four situation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5*, 71-78.

Merrit, D. D., & Liles, B. Z. (1989). Narrative analysis: Clinical applications of story generati on and story retelling.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4,* 429-438.

Minskoff, E. H., Wiseman, D. E., & Minskoff, J. G. (1972). *The M.W.M. program for developi ng language abilities: Expression manual*. Ridg efield, NJ: Educational Performance Associates.

Nam, K. S., & Koh, Y. K. (1996). *The theory of Korean standard grammar*. Seoul: Top Publi-cation.

Pae, S., & Lee, S. H. (1996). Story generation of Korea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 34-67.

Peterson, C., & McCabe, A. (1983).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Three ways of looking at child's narrative*. New York: Plenum Press.

Preece, A. (1987). The range of narrative forms conversationally produced by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Language, 14,* 353-373.

Rollins, P. R., McCabe, A., & Bliss, L. (200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Culturally sensitive assessment of narrative in children. *Seminars in Speech and Language, 21,* 223-234.

Rosinski-McCledon, M. K., & Newhoff, M. (1987). Conversational responsiveness and assertiveness in language impaired children.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8*, 53-62.

Southwood, F., & Russell, A. F. (2004). Comparison of conversation, freeplay, and story generation as methods of language sample elicitation.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 366-376.

Wagner, C. R., Nettelbladt, U., Sahlen, B., & Hilholm, C. (2000). Conversation versus narration in pre-school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orders, 35,* 83-93.

Wiig, E. H., & Semel, E. (1984). *Languag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for the learning disabled* (2nd ed.).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Wren, C. T. (1985). Collecting language samples from children with syntax problem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16*, 83-10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